

순천시, ‘정책페스타’ 개최…생활 속 정책 공유한다

7일~8일 원도심 남문터광장서 지방자치 30주년 미래 비전 공유 다양한 계층 대상 체험 콘텐츠로 ‘원즈 순천’ 등 하나의 축제 공간

전라남도 순천시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남문터광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원에서 ‘정책페스타(포스터)’를 개최한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책페스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변화된 도시 위상과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정책 축제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8개 계

층별 정책부스와 순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시 전 부서가 협업해 준비했다.

정책부스는 아동·청소년, 청년·신혼부부, 여성, 노인, 장애인, 농업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전시와 상담, 체험을 통해 실제 필요한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민 체험형 콘텐츠로 꾸며진다.

각 부스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주제관은 순천시의 도시 위상 변화와 주요 성과, 미래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시민들이 도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책페스타는 같은 기간 열리는 원도심 콘텐츠 축제 ‘원즈 순천’과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과 연계해 원도심 전역을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조성하고, 활력을 더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페스타가 ‘보이는 정책,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원도심 곳곳에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반려견 전용 열차 ‘댕댕트레인’ 운행

10일까지 선착순 200명 모집 국가정원 특별 개방 ‘펫데이’도

전라남도 순천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전남 최초의 반려견 전용 열차 상품인 ‘2025 순천 댕댕트레인’을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서울, 대전, 익산 등 수도권·충청권 지역의 반려인과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며, 총 400석 규모(반려인 200명, 반려견 150마리)로 구성됐다. 열차는 코레일 새마을호 객차를 통째로 대여해 반려견 전용 공간으로 운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

일정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로 운영되며 여행 코스는 순천드라마촬영장, 와온해변, 아랫장야시장, 순천만국

가정원(펫데이 특별개방), 오천그린광장, 낙안읍성 등 순천의 대표적인 반려견 동반 가능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번 상품을 통해 최초로 반려견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펫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반려인과 반려견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코레일 전남본부 및 반려동물 전문 여행사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전문 펫가이더가 동행해 여행 내내 안전관리와 전문적인 반려견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0일까지 여행사 누리집(www.pet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가능 인원은 선착순 200명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오천그린광장 어싱길 맨발걷기’ 참여자 모집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오천그린광장 어싱길 맨발걷기 교실 참여자 200명을 4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맨발걷기 교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순천시의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밴드 등에 기재돼 있는 링크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실은 맨발 걷기 요령, 효과 등을 배운 바른 맨발 걷기 지식을 습득한 후 오천그린광장 어싱길(2.5km)을 통해 직접 맨발 걷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맨발 걷기는 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실을 통해 다양한 수목들과 어우러져 있는 오천그린광장 어싱길을 맨발로 걸어보며 건강과 힐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더 건강한 도시를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문화재단, ‘순천을 Green 어린이 그림 대회’ 개최

전라남도 (재)순천문화재단은 순천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제2회 순천을 Green 어린이 그림 대회’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순천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순천문화재단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해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사전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순천시 초등학교생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대회의 주제는 내가 꿈꾸는 순천의 모습으로, 풍경화 또는 상상화(구상화)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수채화, 크레파스, 색연필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해 8절

도화지(39cmx27cm) 규격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3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으로, 대상 외 시상은 초등부(1~3학년, 4~6학년)로 나눠 시상된다.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오늘의 아티스트상(6명)으로 선정된다. 선정 작품은 향후 순천문화재단 남문터 광장 기획전시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f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문화재단 자원운영팀(061-746-29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꿈꾸는 순천의 모습이 지역 문화 자산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학생들이 다례 체험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선비문화체험학습관, 학생 예절교육 ‘호응’

전라남도 순천시는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학생 예절교육이 전통문화 전승과 인성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작돼 오는 7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총 2학기 운영되는 학생 예절교육은 순천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일상 속 예절을 배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생활 예절교육, 다례 및 다식 만들기 체험, 한복 체험, 순천향교 탐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약 1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정도로 높

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선비문화예다회에서는 어린이,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옛 선비들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강도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선비문화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시민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1만5000개 촛불, 순천만정원에 수 놓는다

6일 캔들라이트 콘서트



2025. 06. 06 (금) 19:40-21:00 | 입장매금 - 19:00 | 동문 호수정원 앞 | 문의 061-749-2734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6일 오후 7시 40분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별가든 밤-치유와 위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약 1만5000여개의 캔들라이트가 정원을 수놓으며 환상적인 야경을 만든다. 고품격 클래식 선율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클래식 5중주 ‘앙상블 톤즈(Ensemble Tones)’가 올라, 클래식명

곡과 영화음악, 지브리 OST 등으로 구성된 총 65분간의 고품격 공연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과 촛불이 수놓은 수많은 촛불이 어우러져 순천만국가정원의 특별한 여름밤의 정취와 감성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야간 특별공연에 맞춰 정원의 야간 운영시간도 특별히 연장된다.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은 이날 하루만 오후 10시까지 2시간 연장되며, 입장권 발권은 평소와 동일하게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공연 관람은 입장객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좌석 없이 돛자리를 지참해 잔디 위에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하는 피크닉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주말의 광장’ 도심 속 레이저태그 진행

7일~8일 원도심 시민로서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원도심 시민로에서 개최되는 ‘주말의 광장’ 행사의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 ‘레이저 태그’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레이저 태그(Laser Tag)란 비접촉형

전자 사격 스포츠로, 총알 대신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차 없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콘텐츠 축제인 만큼, 글로벌웹툰센터 주차장(시민공영주차장)을 활용해 행사 기간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 타임별 총 20명까지 참여해 30분간

체험이 진행되며,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매시간 정각과 30분에 게임이 시작된다. 신장 120cm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타임별 참여자는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로 인원을 10명씩 나눠 모집된다. 사전 예약은 포스터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이뤄지며, 현장 접수로도 참여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